

고소설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과 그 사적 의미*

차충환** · 김진영***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보심록」 계열에 속하는 「금낭이산」, 「보심록」, 「명사십리」, 「장유성전」의 형성과정을 재론하고, 이를 토대로 이 계열의 형성과정이 지닌 사적 의미를 구명하였다.

그동안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에 대한 시각은 「명사십리」→「보심록」→「금낭이산」의 순서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금낭이산」→「보심록」→「명사십리」의 순서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저본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보심록」에서 신소설 형식의 구활자본 「금낭이산」이 먼저 개작·간행되었고, 몇 년 후에 다시 고소설 형식의 「보심록」이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명사십리」는 현 「보심록」의 영향과 현 「금낭이산」 혹은 저본 「보심록」의 영향으로 개작·간행되었다. 국문필사본 「장유성전」은 「명사십리」를 그대로 재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현 「금낭이산」은 “신소설 금낭이산”이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설의 발흥에 대응해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금낭이산」은 신소설기에 고소설이 어떻게 시대적 추이에 대응해 나갔으며, 그 대응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심록」과 「명사십리」는 신소설의 유행이 퇴조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다시 독세를 하던 시기에, 그러한 흐름에 대응해서 산출된 작품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심록」과 「명사십리」의 유통을 통해, 1910년대 후반기 구활자본 고소설의 독자 견인력 혹은 지배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필사본 고소설 「보심록」은 신소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소설 금낭이산”으로 간행되었고, 신소설이 퇴각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독세하던 때에는 “고딕소설 보심록”으로 간행되면서 소설계의 추이에 예민하게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신소설을 표방한 「금낭이산」과 고소설을 표방한 「보심록」의 유통은 작품 수용과 독서 방법에 있어 음독에서 묵독으로, 다시 묵독에서 음독으로 교차 반복된 역사적 실상을 한 계열 내의 이본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보심록 계열, 형성과정, 신소설 형식, 대응양상, 음독, 묵독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KHU-20090499).

** 제1필자, 경희대 연구교수 / cc6410@hanmail.net

*** 공동필자, 경희대 교수 / jin@khu.ac.kr

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천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특히 김진영은 ‘조무 이야기’를 연원으로 하는 일련의 서사물을 계통별로 정리한 뒤 「보심록」 계열의 「보심록」을 대상으로, ‘인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본 작품구조와 창작방식 및 문학적 가치를 심도 있게 고찰한 바 있다. 여기서 논자는 ‘善因’의 서사적 추동력, 인물형상의 재설정 및 다양화, 조선후기 영웅소설 작화 방식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보심록」의 문학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논한 바 있다.

한편, 본고의 관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성과로는 이정은과 강현조의 연구가 있다.⁴⁾ 이정은은 「보심록」 계열 중 「명사십리」를 중심에 놓고 살폈는데, 이는 「명사십리」를 「보심록」과 「금강이산」에 선행하는 작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자는 轉移語와 시간부사의 활용, 서술적 특징, 문체적 특징 등을 기준으로 세 작품을 비교하여, 「명사십리」는 고소설 일반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보심록」은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고소설의 특징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이산」은 고소설을 벗어나 신소설의 방식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명사십리」를 最先本으로 하여 「보심록」이 형성되었으며 「금강이산」은 「보심록」을 모방·개작하면서 「명사십리」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우선 자료 실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즉 판본의 존재 양상이 논자의 주장과는 다르다. 현전하는 實本을 기준으로 보면 최초 간행시기가 「금강이산」은 1912년 12월 20일(회동서관 발행), 「보심록」은 1918년 1월 15일(신구서림 발행), 「명사십리」는 1918년 10월 3일(동아서관 발행)로 확인되기 때문에, 「명사십리」가 타 두 작품을 선행할 수 없다. 이정은은 「명사십리」가 가장 고소설적이기 때문에⁵⁾, 1918년 10월 이전에 간행된 판본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현전 구할자본들의 광고란을 모두 살펴봤으나, 1918년 10월 이전에는 “명사십리”라는 계명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심록」과 「명사십리」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명사십리」가 선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심록」이 「명사십리」보다 서술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한데, 「명사십리」가 「보심록」을 선행한다면, 그 자세함이 「보심록」에서 추가·확장되었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⁶⁾

또한 「금강이산」이 신소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여 후대본으로 판단하는 것도 근대전환기의 소설적 추이와 배치되는 점이 있다. 신소설은 1907년을 필두로 하여 1910년대 중반까지 많은 작품이

2) 김영만, 「「보심록」에 수용된 보은설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pp.185~210; 김용환, 「우정주제 윤리소설 연구-「보심록」, 「숙녀지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pp.137~175.

3) 박경화, 「「보심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6; 김진영, 「「보심록」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적 가치」,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화회, 2008, pp.179~211.

4) 이정은, 「「명사십리」고-변안 및 이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9, 한민족어문학회, 1991, pp.261~293; 강현조, 「「금강이산」 연구-작품의 성립과 그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pp.125~149.

5) 현전 「보심록」과 「명사십리」를 단순 비교해 보면, 계명을 비롯한 서술상의 특징에 있어 「보심록」이 훨씬 더 고소설적이다.

6) 「보심록」과 「명사십리」의 선후관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겠다.

간행되면서 인기를 누렸는데, 고소설의 개작본이나 신작 구소설들도 신소설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내용은 고소설적이고 형식은 신소설적인 형태를 띠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다가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소설이 퇴조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부상함에 따라 애초의 신소설적 특징이 고소설적 형태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보심록」 계열에서 신소설적 특징을 지닌 「금낭이산」이 선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정은은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현조는 「보심록」 계열의 유통 현황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를 펼쳤다. 앞서 언급한바 현전 「보심록」, 「금낭이산」, 「명사십리」의 최초 간행시기를 확정한 것도 강현조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보심록」이 1912년 11월 15일에 최초로 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낭이산」과 「명사십리」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온 것이 상례였다. 이는 「보심록」 영인본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1912년 11월 15일에 발행한 회동서관판(144면)을 대본으로 했다.”⁷⁾는 김기동의 언급을 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현조는 이 기록은 잘못된 것이고 언급된 「보심록」의 영인본은 신구서림에서 1918년에 초판, 1920년에 재판으로 발행된 대본임을 실증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 방증 논거를 바탕으로 「금낭이산」을 1912년에 최초로 창작된 신작 구소설로, 「보심록」도 1918년에 최초로 간행된 작품으로, 「명사십리」 역시 1918년에 최초로 간행된 작품으로 보았다. 이의 결과로 「금낭이산」에서 「보심록」, 「명사십리」가 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논자는 「금낭이산」을 고소설적 내용에 신소설의 형식을 결합시킨 장르 혼합의 한 결과물로 평가하고, 「금낭이산」을 고소설의 제재에 신소설의 기법을 결합시킴으로써 소설 장르의 외연을 확대시킨 하나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 신소설의 등장에 따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고소설이 생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의미 부여를 하였다.

이상 강현조의 논의는 그동안 「보심록」의 한 이본으로만 간주되었을 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금낭이산」의 존재가치와 사적 의의를 처음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금낭이산」이 과연 신작 구소설인가 하는 문제와 「보심록」과 「명사십리」가 「금낭이산」에서 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금낭이산」이 신작이 아니라 고소설 저본이 존재했고 그 저본에서 현전 「금낭이산」과 「보심록」이 시차를 두고 형성되었으며, 「명사십리」는 현 「보심록」과 「금낭이산」, 그리고 저본 텍스트를 토대로 개작되었다고 본다.⁸⁾ 또한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은 고소설이 소위 근대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의 검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7)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p.26.

8) 여기서 ‘개작’의 의미와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저본 혹은 원본과 대비했을 때, 줄거리와 서사 뼈대는 대동소이하나 서술순서, 서사배치, 서사량의 비중, 인물의 명칭, 문체 등에서 현저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해당 작품을 ‘개작’되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술되거니와 「금낭이산」과 「명사십리」는 저본 혹은 원본에 대하여 분명한 ‘개작’이고, 「보심록」은 개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본 혹은 원본과 견주어서 「금낭이산」과 「명사십리」를 설명할 때에는 ‘개작’이라는 용어를, 「보심록」을 설명할 때에는 가급적 ‘전환’, ‘변개’ 등의 용어를 쓰고자 한다.

Ⅲ. 「금낭이산」, 「보심록」, 「명사십리」의 관계

「금낭이산」, 「보심록」, 「명사십리」가 상호 관련이 있는 작품임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기존 논의에서도 그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고 「금낭이산」이 후대에 「錦囊二山 一名 報心錄」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는 것⁹⁾, 「명사십리」가 기본 서사구조는 물론 주변 인물의 인칭, 구체적 행문 등에서 「금낭이산」, 「보심록」과 일치한다는 것 등에서도 그 상호관련성이 입증된다. 그러면 선후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명사십리」는 후술하겠지만 「금낭이산」과 「보심록」을 토대로 개작된 것이 명백하므로 세 작품의 선후관계를 논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금낭이산」과 「보심록」을 중심으로 그 텍스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텍스트 문제

먼저 「금낭이산」을 보자.¹⁰⁾

하나, 작품 초반에 한 강가에서 정소저는 투신하려 하고 그 유모는 말리려 하며 이를 장시걸이란 자가 언덕에 앉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다. 이때 마침 화익삼이 나타나 저간의 사정을 물으니, 유모는 장시걸이 빌려준 돈 대신에 정소저를 재취로 들이려 하여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이에 화익삼이 대신 돈을 갚아준다. 여기에서 장시걸은 상처한 인물로 소개되는데¹¹⁾, 후반부 어느 지점에서 장시걸의 부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¹²⁾ 서술상의 오류가 일어났다. 이에 비해 「보심록」과 「명사십리」는 장시걸¹³⁾이 상처했다는 서술이 없다.

둘, 작품 후반부에서 천자는 역적인 동필적이 내친 충신들을 다시 불러들여 등용시키는데, 그 중에는 양세충의 처인 왕부인의 동생, 즉 세충의 처남인 왕세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훈”의 존

9) 「금낭이산」은 1912년 12월 20일에 회동서관에서 「신소설 금낭이산」이란 제명으로 초판본이 간행된 뒤 1924년 1월 30일에 6판이 간행되었는데, 이 6판본의 제명이 「錦囊二山 一名 報心錄」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15년 10월에 재판, 1916년 12월에 3판, 1917년 12월에 4판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희웅 편,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p.190) 그러나 1924년 이전 판본에도 「錦囊二山 一名 報心錄」으로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기 판본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현전 實本이 존재하지 않아 알 수 없다. 만약 1924년 이전 어느 판본에 「錦囊二山 一名 報心錄」으로 제명한 것이 있다면 현전 「보심록」(1918년 1월 15일 초판)과 다른 「보심록」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10) 본고에서는 1924년 1월 30일에 광익서관·회동서관에서 공동 발행한 판본(6판본)을 사용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12년 12월 20일에 간행된 초판본은 (주)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자료 활용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초판본과 6판본을 대비해 본 결과, 각 지면의 형태 및 분량이나 語尾 活用的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11) “네가 상처후 후 지취를 흐라 후되 돈이 업스즉 돈을 주시거나 만약 돈이 못되면 아가시로 제 안히를 숨기다 혼온즉”(「금낭이산」, p.2.)

12) 「금낭이산」, p.71~72.

13) 「명사십리」는 「박시걸」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느닷없이 등장하여 서사적 흐름이 어색하다. 이는 작품의 전반부에서 왕성일 부부와 왕소저, 왕세훈 남매의 소개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보심록」과 「명사십리」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

셋, 아래 인용문은 동필적이 소개되는 부분이다.

“츠시에 티장군 동필적은 본시 티원 천훈 스품으로 용밍과 무예는 사름이 밋지 못호되 세상에 발신치 못흠을 한호야 V 산방을 침범호미 조정에서 군사로 막되 자주 찌호지라 의병을 소모호니 필적이 적당 슈천명을 거느리고 자원출정호야 안문티슈 주기로 합병협력호야 적군을 티파호니”¹⁴⁾ (‘V’표시는 필자)

요지는 동필적이 산방을 침범하여 조정에서 막았으나 자주 패했다. 그래서 조정에서 의병을 초모하였는데 필적이 자원출정하고 주개와 협력하여 적군을 대파했다고 정리되는데, 이는 모순이다. 이 부분이 「보심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어 「금강이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츠설 이적에 장군 동필적이라 호는 자I잇스니 본릭 티원 사 천인으로 용력(勇力)이 과인(過人)호고 무예(武藝)가 절륜(絶倫)호더니 여러번 무과(武科)에 락방(落榜)호고 쏘호 지도를 천거호는 자I업서 능히 세상에 쫓을 엇지 못호미 홍상 양양(央央)호야 【무뢰비 천여명을 취집(聚集)호야 산중에 웅거호야 빅성의 직물을 로락호며 형인을 살히호고 상고(商賈)를 겁탈호야 불의(不義)로 세월을 보너더니 영조 황제 시절에 복적이 강성호야】 자조 변방을 침로호야 빅성이 산업을 편히 못호니 턴즈I근심호샤 조서를 느려 무릇 민병(民兵)을 모집호야 즈원출전호는 자는 그 성공흠을 기다려 상급흠을 허락호시니 동필적이 그 조서를 밋고 대희호야 즉시 그 당류 천여명을 거느리고 안문 고을에 니르러 안문티슈와 합세호야 도적을 방어코져 호니”¹⁵⁾ (‘【】’표시는 필자)

즉, 「금강이산」의 ‘V’부분에 「보심록」의 ‘【】’부분의 내용이 생략되어 「금강이산」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 외에도 몇몇 부분에서 축약과 생략으로 인한 문맥상의 오류가 눈에 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현 「금강이산」은 원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작이라면 이러한 오류가 생길 수 없다. 그리고 이상의 오류는 대개 이전 텍스트를 새로운 텍스트로 전환할 때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금강이산」은 원본이 아니라 저본 텍스트에서 이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심록」을 보자.

하나, 증문호¹⁶⁾가 위병하자 세충은 자신의 살과 수염을 달여 먹여 문효를 살려낸다. 이때 문효의

14) 「금강이산」 p.8.

15) 「보심록」, 신구서림 발행(1920년 4월 재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p.11~12. 앞으로 「보심록」은 이 판본을 이용한다.

처 손씨는 남편이 세충의 치료로 살아남을 보고 그 은혜에 감복하는데, 이 부분에서 증문효의 처 '손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불쑥 등장하고 있어 서술이 어색하다. 작품 초반에서 양사기는 화익삼과 증문효가 17세가 되자 벌열가 규수를 선택하여 혼인을 시킨 바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혼사 사실만 서술되어 있을 뿐 각 처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씨'를 등장시켜 오류가 생긴 것이다. 「금낭이산」에도 이 부분에서 '손씨'가 등장한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화익삼의 처는 소씨, 정문희의 처는 손씨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다.

둘, 「보심록」은 작품의 배경이 명나라 '宣德' 연간이고, 양세충, 화익삼, 증문효는 "성종황제 즉위 혼지 삼십년"에 급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그러나 명나라 선덕 시대에는 宣宗이 재위했고 선종은 선덕 9년에 물했으므로, '성종황제 즉위 30년'이라는 표현은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史實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기록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 「보심록」으로 정착될 때 생긴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낭이산」에는 '즉위' 운운하는 부분이 없고, 「명사십리」에는 '즉위 3년'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셋, 양세충과 왕소저는 13세에 정혼한 후 바로 혼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왕소저의 부 왕상서와 양세충의 부 양승상이 연이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승상은 죽기 전에 '입신양명하여 60여년을 살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죽었을 때의 나이는 75세로 서술되어 있다.¹⁸⁾ 역시 오류다.

이상 부분적이긴 하나 현 「보심록」의 서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현 「보심록」도 원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현전하는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텍스트를 살펴본 결과, 현전본은 원작이 아니라 특정 저본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후 관계

현 「금낭이산」은 1912년에 최초 간행되었고 현 「보심록」은 1918년에 최초 간행되었다. 따라서 현 「보심록」이 현 「금낭이산」의 저본이 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남은 것은 현 「보심록」의 저본이 현 「금낭이산」일 가능성이다.¹⁹⁾ 그러면 양자를 구체적으로 대비해 보자.

대비상 두드러진 특징은 서사의 동일 부분의 서술량이 「금낭이산」보다 「보심록」이 훨씬 길다는 점이다. 만약 「금낭이산」에서 「보심록」으로의 전환을 전제하면, 그 길어진 것은 「보심록」에서 삽입·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몇 예를 보기로 한다.

16) 「금낭이산」에는 '정문희'이다.

17) 「보심록」, p.2.

18) "내 젊어서 입신양명하야 육십여년을 살아 부귀를 누렸스니 내 이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스리오마는인하야 세상을 바리니 년이 칠십오세러라"(「보심록」, pp.10~11.)

19) 강현조는 위의 논문에서 이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나, 양세충과 왕소저의 혼인 과정을 보자. 「금낭이산」에서의 혼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즉, ㉠ 양승상의 생일날, 양승상이 예부상서 왕성일과 주찬을 나누면서 세충과 왕소저의 정혼을 청한다. ㉡ 왕상서와 그 부인 강씨가 혼연히 허락한다. ㉢ 세충과 왕소저에게 글을 짓게 하여 그것으로 신물을 삼는다.²⁰⁾

그러나 「보심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양승상은 주위의 청혼을 물리치고 매파 조삼랑에게 규수를 찾아보라고 한다. ㉤ 조삼랑이 왕소저를 천거하면서 그녀의 여공, 효행, 색태, 덕기, 문장, 필법 등을 자세히 말한다. ㉥ 양승상이 조삼랑에게 왕부에 가서 통혼하라고 하니, 조삼랑은 왕소저가 아직 13세밖에 되지 않아 쉽게 허락지 않을 것이니 승상이 직접 청혼하라고 한다. 왕상서와 강부인, 왕세훈과 왕소저 경량이 소개된 후, ㉦ 강부인이 왕소저의 혼처를 걱정하니 왕상서가 양세충의 인물됨을 말한다. ㉧ 강부인이 왕상서에게 양부에 가서 청혼해 보라고 한다. ㉨ 양승상의 생일날, 승상의 청혼으로 세충과 왕소저가 정혼을 한다. ㉩ ‘心’자를 韻字로 하여 세충과 왕소저가 시를 짓고 그것을 교환하여 신물로 삼는다.²¹⁾ ㉪ 왕상서가 세충의 시와 소저의 시에 魔障이 있음을 포착하고 내두사를 걱정하나 양승상은 무시한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의 차이가 확연하다. 과연 이러한 차이를 「보심록」에서 삽입·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양자의 차이를 ‘삽입·확대’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둘, 아래의 인용문은 양세충의 아들 양두성이 전장에서 동필적 진영의 요승 오각대사와 맞섰을 때의 장면이다.

“잇흔날 평명에 오각이 진문을 나서 마상에서 고성디호호되 두성은 나와 나를 디덕하라 두성이 두고 오날이야 요승을 업시 호깃다 호고 응침출마홀시 사랑이 경계호되 동적의 영용이 전일과 갖고 또 요승의 계교가 만호니 조심호고 경적지 말아 소루홀이 업게 호라 (두) 부친은 과려치 마시옵소서 곳 말을 문고 아리 나가 디미호되 너는 슈도호는 슴으로 즈비지심은 업슬망정 살육을 만히 호엿스니 엇지 하날에 죄인이 아니며 도가의 역적이 아니리오 속히 칼을 바드라 (오) 적은 아히 엇지 큰 말을 호야 군심을 현란케 호노뇨 두성이 디로호여 접전코져 호니 오각이 또 이로되 너 지혜로 닷톨지언정 심으로 싸호지 아니호리니 진법으로 즈옹을 결호리라 (두) 네 묻져 진법으로 나를 보게 호라 오각이 괴를 두루고 복을 치니 스면 복병이 일시에 이러 철통긋치 에우거늘”²²⁾

“이튼날 평명에 도승이 칠진가스사에 룡환장을 손에 들고 말의 올라 진문에 나서 크게 불려 왈 명진 대장은 썰니 나와 나를 디적하라 원수! 대희왈 더 중놈이 죽을 날이 니르렀도다 더

20) 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세충과 왕소저의 시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22) 「금낭이산」 pp.118~119.

를 먼저 잡으면 동적은 넘려 업스리라 하고 응성출마하야 크게 꾸지져 왈 더 중놈은 무슨 영
 욕(榮辱)을 구하야 역적에 쫓여드렛느뇨 불도는 원릭 고요흔 거슬 주장하느고로 네브터 싱불
 과 도승이 모다 산중에 있고 풍진에는 나오지 아니하엿거늘 이제 너는 세상영욕에 맛음을 두
 고 역적을 도와 국가에 득죄하고 부처의 득죄하느도다 도승왈 어린아히 무슨 잡말을 하느뇨
 옛적에 진만화는 턴하를 도모하다가 었지 못하미 도라가 불문 턴즈 1 되엿스니 이는 불도에도
 영귀를 숭상하엿고 희여대스는 돌궐을 쳐서 승전하엿스니 이는 불도에도 공명을 위하엿으며
 또 싸하느 법은 이기면 임군이 되고 꺾하면 역적이 되느니 은왕성탕주무왕왕망동탁(殷王成湯
 周武王王莽董卓)이 승피만 곳지 아닐 뿐이오 그 맛음은 다 일반이라 네 이제 승피도 보지 아
 니코 었지 동씨를 역적으로 지하느뇨 원슈 1 대노하야 바로 다라드려 도승을 취하니 도승이 말
 머리를 도로혀며 룡환장을 두루미 스면복병이 벌세 곳치 니러나며 원슈를 겹겹이 둘러싸거
 늘”²³⁾

위의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상황 설정에도 차이가 있고 서술 행문에도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심록」의 줄친 부분이 주목된다. 「보심록」이 「금강이산」을 저본으로 했을 경우, 줄친 부분은 「보심록」에서 새로 삽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상황 설정을 바꾸면서까지 굳이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위기일발의 대결 상황에서 저런 대화를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일뿐더러, 줄친 부분의 내용이 논리상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독자들의 흥미를 제고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삽입의 문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현 「보심록」의 저본이 따로 있었고 그 저본을 「보심록」과 「금강이산」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 아래 인용문은 동필적과 주개의 진출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필적이 적당 슈천명을 거느리고 자원출정하야 안문티슈 주기로 합병협력하야 적군을 디 파하니 주기 필적의 공을 표주하디 조정에서 주기로 괴쥬즈스를 하고 필적으로 통쥬지부를 제비하야 북방을 직히게 하니 주기는 곳 좌장군 쥬웅의 으달로 전 안문티슈 장소의 비장이 되야 도적이 지경을 범하디 장쇠 싸호지 으니함을 분하야 장소를 죽이고 도적을 쳐 디파하 후 표를 올녀 장소 죽인 죄를 청하니 조정에서 죄를 스하고 인하야 안문티슈를 식엿더라”²⁴⁾

“동필적이 그 조서를 밋고 대화하야 즉시 그 당류 천여명을 거느리고 안문 고을에 니르려 안문티슈와 합세하야 도적을 방어코져 하니 티슈 1 그 비장 주기로 하야곰 동필적을 영접하야 장하에 두고 도적 토벌할 계책을 의논하더니 동필적이 주기로 더브러 췌하고 성언(聲言) 하기를 안문티슈 장소가 반할 뜻이 잇서 적병을 인도하야 중국 디경에 드러와 룡략질하게 하엿다 하야 모야무지간에 주기로 하야곰 장중에 드러가 티슈의 머리를 버쳐 군중에 호령하고

23) 「보심록」, pp.117~118.

24) 「금강이산」, p.8.

인하야 안문군스 오천을 아서 적병을 치니 주기 쏘흔 용팅과 무예가 절등함으로 일거에 승정
하야 복적의 근심을 제하니 턴즈 그 공을 괴특이 녀이샤 주기로 안문턱슈를 제슈하시고 동
필적으로 통주지분을 제슈하샤 하여곰 도적을 방어케 하시니”²⁵⁾

양자를 비교해 보면 주개가 안문태수가 된 시점이 다르다. 「금낭이산」은 주개가 필적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안문태수가 되었고 공을 세운 뒤에는 다시 승품하여 기주자사가 된 반면, 「보심록」은 주개가 필적을 만난 후 안문태수가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작품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보심록」이 「금낭이산」을 저본으로 했다고 볼 경우, 「보심록」에서 변개를 했다는 것인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보심록」의 인용문을 보면 동필적과 주개가 작당하여 안문태수 장소를 죽이는데, 이것은 이유가 없는 행위이다. 만약 장소가 협력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었다면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소는 필적을 영접하여 계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따라서 죽일 이유가 없다. 반면 「금낭이산」에서는 주개가 장소를 죽인 일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 「보심록」이 「금낭이산」을 저본으로 개작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했을 리 없다. 결국, 현 「보심록」은 「금낭이산」을 저본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²⁶⁾

넷, 분량과 관련하여 간행 시기가 늦은 「보심록」의 작품 분량이 「금낭이산」보다 훨씬 더 많다. 구활자본 고소설의 저본은 일반적으로 방각본, 필사본이 대부분인데, 「방각본·필사본→구활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후대본인 구활자본에서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물며 「금낭이산→보심록」을 전제한다면, 이것은 「구활자본→구활자본」의 형성 과정인데,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형성 과정을 지닌 작품이 존재한다고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후대본에서 내용 변개 및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구활자본의 일반적인 형성 경향에 비추어보더라도, 내용 분량이 많은 「보심록」이 분량이 적은 「금낭이산」을 저본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이상과 같이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텍스트 성격, 선후 관계의 고찰을 통해 볼 때, 「금낭이산」과 「보심록」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특정 저본에서 따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전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저본은 어떠한 형태일까. 아마도 현 「금낭이산」보다는 현 「보심록」과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한다. 앞서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동일 내용 부분을 대비해 보았는데, 두 작품을 영향 관계를 따지지 않고 단순 비교해 보면, 「금낭이산」에서 오히려 축약 및 생략이 일어나 간략화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작품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저본 텍스트가 「금낭이산」에서는 축약 및 생략을 통해 간략화되는 방향으로 수용되었고, 「보심록」에는 큰 변개 없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음을 말해준다.²⁷⁾ 그리고 현 「보심록」의 말미에는 “이후

25) 「보심록」, p.12.

26)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9, pp.127~130.

27) 그렇다고 하여 현 「보심록」이 저본을 전혀 변개 없이 수용한 것은 아니다. 대략 여섯 부분 정도에서 서술내용상 축약 및 생략이 일어난 현상을 볼 수 있다.

로 양승상 화티부 중어스 1 각각 부쳐히로호야 부귀영화로 빅세향슈호고 즈손이 번성호야 세 집이 디팅통가(代代通家)로 부귀 끈칠 적이 업시 대흥부 안에 유명호 괴담이 지금껏 류전호니 이는 선호 믿음의 보음이 아닌가 이럼으로 이 책 일흠을 보심록이라 호노라”²⁸⁾와 같이 “보심록”이란 제명을 붙인 계기가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필사본 고소설의 말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²⁹⁾ 이를 통해 볼 때,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저본은 필사본으로 유통된 “보심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한편, 「명사십리」는 현 「보심록」의 영향은 확실하고, 현 「금낭이산」 혹은 저본 「보심록」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몇가지 근거를 들어보기로 한다.

하나, 「보심록」에서 화익삼은 이유신으로부터 양세충의 돈을 받아오다가 빗독촉에 몰려 딱한 처지에 있던 정소저를 구제하기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장시걸에게 주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넋 형중에 잇는 돈이 비록 내 것은 아니나 죽는 사람을 보고 구호지 아니호면 이는 장시 걸에 비호야 나를 거시 업도다 나는 도라가 금전으로 갑홀 거슨 업스니 믿음으로 양시랑의 갑호리라 호고 로고드려 닐으되”³¹⁾

위의 인용문이 「금낭이산」에는 없고 「명사십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어, 「보심록」과 「명사십리」의 직접 관련성을 알게 해준다.

“형중에 진이고 오는 금전이 비록 나의 직물은 아니나 죽을 스름을 보고 엇지 구호지 아니호리오 넋 도라가서 금전으로는 갑지 못호터리도 마음으로는 갑호리라 호고 일변 그 로구 더러 왈”³²⁾

28) 「보심록」, p.142.

29)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시 여간 문견과 디강 스적을 보와 **쌍선괴** 소설 이십편을 지어 맞춤니 일흠을 유전 코즈 호미로다”(《쌍선기》),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8권, 아세아문화사, 1980, p.500; “이러므로 호스호는 사람이 먼을 지어 디락을 괴록호고 일흠을 **낙천등운**이라 호니 각각 황련의 썩러져다가 청운의 오로다 호 뜻이라”(《낙천등운》),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I 『落泉登雲』, 이화여대출판부, 1971, p.410; “부즈의 믿음을 빗최미 몸과 그림즈 고헌니 이 진실노 절외의 아름다운 말이라 고로 슈데 **보은괴우**라 호고 일명을 탄지가언이라 호니라”(《보은기우록》),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VI 『報恩奇遇錄 下』, 이화여대출판부, 1977, p.269; “슈계 **벽허담관제언록**이라 호믄 요란호 설화와 허망호 스의 세간의 편헝호야 고인을 의방빙거호야 잡되고 어즈러오미 만홀시 허언을 물니치고 모든 언서 중 부졸호미 업고 명정언 순호미 갖가와 하시 스적이 웃듬인고로 **관제언록**이라 호야 후세의 먼호야 권선징악고져 호느니”(장서각 소장본 「벽허담관제언록」 권26 말미).

30)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집문당, 1999)을 보면, 필사본 「보심록」이 북한에 1종, 소장영이 1종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의 서지사항을 볼 때, 필사본이 아니거나 필사본이라 하더라도 12회본 활자본을 필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물을 볼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에서 나온 활자본 「보심록」의 해제 서문에 “수사본으로 전해오다가 후에 활자본으로 인쇄되었다”는 언급으로 보아(고전문학실 편, 『한국고전소설해제집 上』, 보고사, 1997, p.326.), 「보심록」 필사본이 활자본 형성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1) 「보심록」, p.20.

32) 「명사십리」, p.15. 대본은 동아서관·한양서적업조합 발행(1918.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보심록」의 텍스트를 고찰할 때 언급한 바 있거니와, 「보심록」에서는 증문효의 처 ‘손씨’를 불쑥 소개하여 서술상의 오류를 범했는데, 「명사십리」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명사십리」가 현 「보심록」을 토대로 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둘, 양승상의 생일날, 「금낭이산」에서는 “시중 오부가 빙어 한 쌍”³³⁾을 선물로 바치고, 「보심록」에서는 “한 스름이 칭선 두 기”³⁴⁾를 선물로 보내는데, 「명사십리」는 이 중에서 「금낭이산」의 행문을 수용하고 있다.³⁵⁾ 또한 동필적을 치러간 장수 중 “소쌍”, “주원”이란 인물이 「금낭이산」과 「명사십리」에는 등장하나, 현 「보심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명사십리」에는 현 「보심록」에는 없고 「금낭이산」에는 존재하는 행문들이 다수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명사십리」는 저본 「보심록」을 직접 수용했을 수도 있고, 현 「금낭이산」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

「명사십리」는 상당한 개작이 일어난 작품이다. 대표적인 예로, 첫째, 주동인물의 인칭이 다르다. 「금낭이산」에서는 주동인물로 승상 양자기, 양세충, 화익삼, 정문회, 동필적, 조학, 조간, 굴돌평, 양두성, 화시발 등의 인칭이 등장하고, 「보심록」에는 승상 양자기, 양세충, 화익삼, 증문효, 동필적, 조학, 조간, 굴돌평, 양두성, 화시발 등의 인칭이 등장한다. 이에 대응하는 인물이 「명사십리」에는 승상 장연수, 장경문, 진평중, 윤광옥, 정필구, 조침, 조복, 김치근, 장유성, 진충국 등으로 인칭이 바뀌었다. 둘째, 「금낭이산」과 「보심록」에는 왕부인의 옥중 아이를 女醫 오주은이 藥囊에 담아 빼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사십리」에는 갑자기 나타난 청학 한 쌍이 아이를 업고 날아가 윤광옥과 진평중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등장한 청학은 왕부인이 옥에서 탈출한 뒤에도 길을 인도하는 등 작품 내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왕부인은 아이의 이름을 ‘장유성’이라고 짓고 생월생시를 적어 아이의 옷고름에 매달아준다. 셋째, 옥화선이란 기생의 형상이 다르다. 「금낭이산」과 「보심록」에서는 옥화선이 동필적의 애첩으로서 謀士 조학의 인물됨을 보고 유혹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로 등장하나, 「명사십리」에서는 옥화선이 정필구와 조침을 이간시켜 두 사람 모두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침을 유혹한다. 이러한 공로로 옥화선은 나중에 천자로부터 포상을 받기까지 한다. 넷째, 「금낭이산」의 굴돌평과 「보심록」의 굴돌평은 양세충에 의해 구조되어 살아난 후 양세충, 왕부인 등에게 여러번 은혜를 갚았다. 그러나 작품 말미에는 필적의 잔당에 의해 죽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³⁶⁾ 그러나 「명사십리」에서는 돌평에 대응되는 김치근이 다른 주동인물들과 함께 종신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⁷⁾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국문필사본 〈張遺星傳〉은 「명사십리」를 그대로 필사한

33) 「금낭이산」, p.5.

34) 「보심록」,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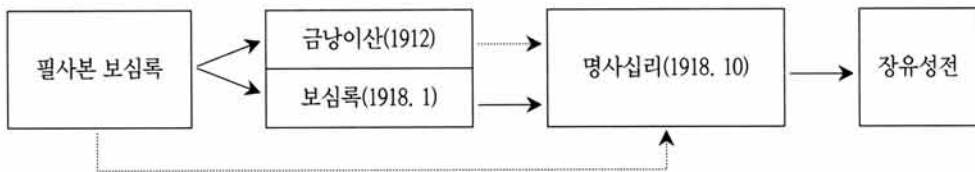
35) “시중 벼슬하는 오부라 한 사람이 빙어 일쌍을 칭선로 드리거늘”(「명사십리」, p.5.)

36) 이에 대하여 「보심록」에서는 “굴돌평의 본심 보면 강도 죽 각 능스 숨어 여러 목숨 희하다가 중간 선심 감동 되어 죽을 사를 구제하니 일시 부귀 하였스나 와석종신 어려웁라”(p.144.)라고 서술되어 있다. 즉, 굴돌평이 ‘보심’을 아는 사람이긴 하나, 강도 자객질로 여러 사람을 해친 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종신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7) 이러한 차이를 볼 때, 「명사십리」에서 현 「금낭이산」이나 「보심록」으로의 개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것이다.³⁸⁾ 이점은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大正拾參年元月念日始製 明沙十里 新小説 張遺星傳 卷之單” 등의 필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⁹⁾ ‘장유성’은 장경문과 왕부인의 아들 이름으로서,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양두성’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양두성과 장유성은 각각 구사일생하여 도사로부터 수련을 받은 뒤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를 계기로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인물로서, 작품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영웅적 인물이다. 「명사십리」를 필사하면서 “張遺星傳”으로 제명을 바꾼 것을 보면, 「장유성전」의 필사자는 영웅소설의 서사형식에 익숙했던 사람으로 판단된다.⁴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실선 : 확실, 점선 : 추정)

IV. 「보심록」 계열 형성과정의 사적 의미

1900~1920년대 소설사의 구도는 크게 전래의 방각본과 필사본 소설의 유통, 신소설의 형성과 유통, 구활자본 고소설과 신작 구소설의 유통, 「무정」을 비롯한 근대소설의 유통 등으로 구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본고의 논의는 신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의 형성과 유통 및 그 저변에 존재하는 사적 의미를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사에 의하면 신소설은 1907년에 「혈의루」가 창작·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여 1912~1914년 사이에만 무려 80여편이 창작·유통될 정도로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린 바 있다.⁴¹⁾ 반면에 구활자본 고소설은 1912년 8월에 「불로초」와 「옥중화」가 형성·유통되면서 소설사에 등장한 후⁴²⁾, 1915~1918년에는 신규 발행 작품이 179편, 총 발행 횟수가 359회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세를 보인 바 있고, 잠시 주춤했다가 1925~26년 사이에 다시 총 발행 횟수가 180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출간된 바 있다.⁴³⁾ 소위 딱지본 소설이라 불리는 이들 구활자본 고소설과 일부 신소설

38) 「장유성전」의 소개는 박인희, 「「장유성전」의 연원과 특징」, 『새국어교육』 68,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pp.257~285에서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39) 대정13년은 1924년이다.

40) 영웅소설은 주인공인 영웅의 일대기를 ‘...전’이란 표제로 담아낸 ‘傳冊’을 말한다. 그런데 「명사십리」를 변화없이 그대로 필사하면서도 제명을 굳이 ‘장유성전’으로 바꾼 것은 필사자가 이러한 영웅소설의 형식을 의식한 결과다.

41)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의 시각』, 소명, 1999, pp.221~225.

42) 권순금,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p.22.

들은 대중 독자의 출현에 지대한 역할을 미쳤으며, 책읽기의 대중화·근대화에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⁴⁾

신소설과 구활자본 고소설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전성기를 누렸지만⁴⁵⁾, 서로간에는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고소설이 신소설 양식에 대응해나간 방식, 반대로 신소설이 고소설 양식에 대응해나간 방식이 각각 어땠는가, 그리고 각 대응방식이 당대의 독서방법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고에서 고찰한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은 그러한 관심사를 풀어보는 데 중요한 입론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Ⅲ장의 논의에 따르면,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보심록」은 1912년에 구활자본 「금낭이산」으로 개작되어 유통되었고, 다시 1918년 1월에는 고소설 「보심록」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인기에 편승하여 인물의 인칭과 형상, 서사구조 등에서 약간의 변개를 가한 구활자본 「명사십리」가 1918년 10월에 발행되어 폭넓게 유통되었고, 다시 「명사십리」를 필사본의 형태로 재수용한 「장유성전」이 형성되었다.

「금낭이산」은 “신소설 금낭이산”이란 제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소설을 표방하고 형성된 것이 명백하다. 그에 따라 ‘…傳’, ‘…錄’이 아닌 신소설적 제명을 취하고 있으며, 내용의 편집도 소설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虛頭의 설정⁴⁶⁾, 단락 구분, 대화자 표기와 문단식 대화체, 도치서술, ‘—는다’류의 현재형⁴⁷⁾ 등 신소설투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보심록」은 “고딕소설 보심록”이란 제명에 걸맞게 순수 고소설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라’식의 옛문장, ‘각설, 화설’ 따위의 화두사, ‘—알’류의 구투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無子로 인한 기자치성, 매파를 이용한 혼사, 후손과 가문의 흥성에 대한 기술 등 전래의 고소설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명사십리」 역시 제명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고소설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유성전」은 제명 까지도 온전히 고소설로 복귀한 작품이다.

「금낭이산」에서의 변모는 신소설의 발흥에 대응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신소설은 1907년을 기점으로 하여 당시대의 소설계를 장악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그에 따라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김교제 등의 작가들이 등장하여 많은 작품을 창작한 바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래의 고소설을 신소설 형식으로 개작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이해조가 판소리계소설을 개작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금낭이산」 역시 전래의 고소설을 신소설 형식으로 개작하는 흐름에 대응해서 형성된 것이다.

43) 이주영, 앞의 책, p.36.

44) 일러스트를 도입한 울긋불긋한 표지, 읽기 쉬운 4호 활자의 도입 등 딱지본 소설의 표지와 편집 체제는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의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p.64~76.

45) 신소설의 창작은 1910년대 중반에 이르면 급격히 퇴조하게 된다. 한기형,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46) 「금낭이산」은 “느진봄녹음은 너른들에 가득하고 저녁연기는 시늉버들에 잠겨있서 지는히는 양즈강언덕에 빚쳐논 덕……”와 같이 시작된다.

47) “그스름의게 묻는다, 할미를 불너 묻는다, 스스로 심각을 혼다, 훌쩍훌쩍 운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금낭이산」은 근대전환기에 고소설이 어떻게 시대적 추이에 대응해 나갔으며, 그 대응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반면에, 구활자본 「보심록」의 형성은 근대전환기에 구활자본 고소설의 지속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금낭이산」이 1912년에 형성된 후 지속적으로 중판되는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같은 작품을 다시 간행했다는 것은 고소설의 독자 견인력 혹은 지배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고소설에 대한 수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신소설 금낭이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고딕소설 보심록”을 출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심록」이 간행된 1918년경에 이르면 고소설에 대한 수요층이 소설계에 다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신소설이 191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히 퇴조했다는 시각과 정확히 대응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신소설 금낭이산”도 후대 판본으로 갈수록 신소설적 요소를 탈피하고 고소설의 형식으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즉, 1912년 판본 「금낭이산」과 1924년 판본 「금낭이산」을 비교해 보면, 제명이 “의협소설 금낭이산”으로 바뀌게 되고, 편집 체제에 있어서도 단락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문체도 고소설적 구투로 변모하게 된다.⁴⁸⁾

요컨대 필사본 고소설 「보심록」은 신소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소설 금낭이산”으로 간행되었고, 신소설이 퇴각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득세하던 때에는 “고딕소설 보심록”으로 간행되면서 소설계의 추이에 예민하게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활자본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시차를 둔 간행은 고소설이 각 시기의 지배적인 양식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명사십리」는 구활자본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인기에 견인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심록」과 같은 고소설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작품 형성 당시의 독자 대중의 관심사가 여전히 고소설에 모여져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는 「장유성전」의 형성도 마찬가지다.

구활자본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유통은 작품의 수용방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팔호 속에 대화자 이름을 표기하고 띄어쓰기와 단락구분을 하며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는 등의 신소설 텍스트는 개인적 독서 즉 묵독을 지향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볼 때, ‘공동체적 독서·음독’에서 ‘개인적 독서·묵독’으로서의 이행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였다.⁴⁹⁾ 그런 점에서 필사본 고소설 「보심록」에서 신소설 형식의 「금낭이산」으로의 전환은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띄어쓰기와 단락구분 및 대화자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고딕소설 보심록”이 다시 간행되었다는 것은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이행이 일직선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⁵⁰⁾ 이와 같이 1910년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볼 때, 독서방법이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아직 많은 고소설 독자들은 청각에 의존하거나 시청각을 병

48) 이 점은 강현조의 앞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49) 천정환, 앞의 책, p.120.

50) 이 점은 띄어쓰기 및 단락 구분, 대화자표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명사십리」의 유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이다.

행하여 작품을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사람들의 시각은 청각을 압도하지 못했던 것이다.⁵¹⁾ 「보심록」 계열의 형성 및 유통 양상은 소설 수용방식의 이러한 추이를 한 계열 내의 이본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보심록」 계열에 속하는 「금낭이산」, 「보심록」, 「명사십리」, 「장유성전」의 형성과정을 재론하고, 이를 토대로 이 계열의 형성과정이 지닌 사적 의미를 구명해 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보심록」 계열의 형성과정에 대한 시각은 「명사십리」→「보심록」→「금낭이산」의 순서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금낭이산」→「보심록」→「명사십리」의 순서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저본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보심록」에서 신소설 형식의 구활자본 「금낭이산」이 먼저 개작·간행되었고, 몇 년 후에 다시 고소설 형식의 「보심록」이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사십리」는 현 「보심록」의 영향과 현 「금낭이산」 혹은 저본 「보심록」의 영향으로 개작·간행되었다. 국문필사본 「장유성전」은 「명사십리」를 그대로 재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결론은 현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텍스트가 원작이 아니라는 점과, 현 「금낭이산」이 현 「보심록」의 저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둘째, 현 「금낭이산」은 「신소설 금낭이산」이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191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신소설의 발흥에 대응해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금낭이산」은 근대전환기에 고소설이 어떻게 시대적 추이에 대응해 나갔으며, 그 대응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셋째, 「보심록」과 「명사십리」는 신소설의 유행이 퇴조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다시 득세를 하던 시기에, 그러한 흐름에 대응해서 산출된 작품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심록」과 「명사십리」의 유통을 통해, 1910년대 후반기 구활자본 고소설의 독자 견인력 혹은 지배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필사본 고소설 「보심록」은 신소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소설 금낭이산”으로 간행되었고, 신소설이 퇴각하고 구활자본 고소설이 득세하던 때에는 “고딕소설 보심록”으로 간행되면서 소설계의 추이에 예민하게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활자본 「금낭이산」과 「보심록」의 시차를 둔 간행은 고소설이 각 시기의 지배적인 양식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신소설을 표방한 「금낭이산」과 고소설을 표방한 「보심록」의 유통은 작품 수용과 독서 방법

51) 천정환, 앞의 책, p.120.

에 있어 음독에서 묵독으로, 다시 묵독에서 음독으로 교차 반복된 역사적 실상을 한 계열 내의 이본 작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자료〉

- 「금남이산」, 광익서관·회동서관 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보심록」, 신구서림 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명사십리」, 동아서관·한양서적업조합 발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장유성전」, 장서각 소장본.
 「벽허담관제언록」, 장서각 소장본.

〈논저〉

- 강현조, 「「금남이산」 연구-작품의 성립과 그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고전문학실 편, 『한국고전소설해제집 上』, 보고사, 1997.
 권순궁, 『활자본 고소설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8권, 아세아문화사, 1980.
 김영만, 「「보심록」에 수용된 보은설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13집, 한국문화회, 1992.
 김응환, 「우정주제 윤리소설 연구-「보심록」, 「숙녀지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2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4.
 김진영, 「「보심록」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적 가치」,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화회, 2008.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박경화, 「「보심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6.
 박인희, 「「장유성전」의 연원과 특징」, 『새국어교육』 68,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이정은, 「「명사십리」고-변안 및 이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9, 한민족어문화회, 1991.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9.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Ⅰ 『落泉登雲』, 이화여대출판부, 1971.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편,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Ⅶ 『報恩奇遇錄 下』, 이화여대출판부, 1977.
 조희웅 편,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푸른역사, 2003.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의 시각』, 소명, 1999.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and historic meaning of 〈Bosimrok〉 series

Cha, Choung-hwan* · Kim, Jin-young**

This thesis investigated to formation process and historic meaning of Bosimrok series. Bosimrok series is composed of Gumnangyisan, Bosimrok, Myungsasimri, Jangyusungjun. The while, the formation process of Bosimrok series was knowned to order of 'Myungsasimri → Bosimrok → Gumnangyisan' or 'Gumnangyisan → Bosimrok → Myungsasimri'. But the original text Bosimrok made Gumnangyisan and Bosimrok. Accordingly, ancient printing type version Gumnangyisan and Bosimrok is not related. And Myungsasimri was formed by influence of Bosimrok and Gumnangyisan, or original text Bosimrok. The copying Jangyusungjun was formed by Myungsasimri. This result is concluded that Gumnangyisan and Bosimrok is not original text. And that Gumnangyisan can't become original text of Bosimrok. Gumnangyisan is written in "new-novel Gumnangyisan". Accordingly, it was made by sudden rise of new novel. Therefore, Gumnangyisan have meaning because of it shows historic transition of ancient novel. Bosimrok and Myungsasimri was formed during ancient printing type version ancient novel is in fashion. And new novel was declined at that period. Accordingly, through currency of Bosimrok and Myungsasimri, we can understand disposition of reading public at 1910's latter period. As a result, copying ancient novel Bosimrok was published to "new-novel Gumnangyisan" at new novel currency period. And it was published to "ancient-novel Bosimrok" at ancient printing type version ancient novel period. Through this, ancient novel accord to historic flowing. Once again, the publishment of Gumnangyisan and Bosimrok shows countermeasure aspect on dominated novel form of each period. And it is meaning of Gumnangyisan and Bosimrok. The Gumnangyisan of new novel form and Bosimrok of ancient novel form was nearly formed same period. And it showes difference of reading method which is related on sound reading and silent reading.

[Key Words] Bosimrok series, formation process, form of new novel, countermeasure aspect, sound reading, silent reading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